

진안홍삼축제, 도 최우수축제 됐다

전북 14개 시군 대표축제 심사서 4년 연속 선정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2022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진안홍삼축제는 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실시한 2022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표축제 심사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 등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지정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지표를 준용했다.

2016년 진안군 대표축제로 지정된 진안홍삼축제는 2020년도부터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와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후 4년 연속 그 명성을 이어오



진안홍삼축제

고 있다. 올해 홍삼축제는 지난 10월 7일 진안고원시장, 8일부터 10일 마이산 북부에서 4일간 펼쳐졌다.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답게 홍삼 관련 프로그램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으며,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홍삼축제의 향유계층을 중장년층에서 어린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4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선정은 축제를 준비해주시는 축제추진위원들의 노력과 축제 관계자분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위촉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위해... 위촉식·회의 가져

장수군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수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사회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정책 수립 시행,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위원회 위촉직 위원 8명에 대해 위촉장 수여 등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된 8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의 의견 수렴, 일자리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일자리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및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센터장 △이희림 생활개선회연합회장 △최민강 로컬JOB센터장 등을 지역 일자리협력 위원들로 하여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이종훈 부군수(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조덕현 위원이 선출됐으며, 이번 회의에서 2022년 장수군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를 통해 민선 8기 반영될 사업 및 방향에 대해 농업농촌 일자리 고도화, 청년정착 지원 대책 등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장수군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률 향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수변구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앞장'

2023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전년 대비 20억원 증가 87억원 확보

진안군이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대거 확보해 용담호 수질은 물론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진안군은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2023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87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52억원, 인공습지 조성 및 운영사업 등에 19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수변

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6억원 등을 투입하여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관리와 금강수계법에 의한 행위제한 등으로 타법 및 타지역에 비해 여러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수계법상 수계기금 지원규정이 용도별로 지원됨에 따라 규제지역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 4월부터 기존사업을 비롯해 2023년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

굴해 전라북도 및 금강유역환경청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전국담수변수장군수협의회, 국회 등 여러 관계부처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 온 결과, 20억 원의 기금 증액확보의 결실을 거두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에 확보한 기금은 수변구역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이 진안군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금확보를 위한 정책 논리 개발과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물, 판매채널 다각화 MOU 체결

진안군 직영 소평물인 진안고원물이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소평 플랫폼인 앤드마켓과 판매채널 다각화 및 진안군 관내 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앤드마켓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공식 판매처로 국내 농수축 1차식품,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 플랫폼이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도농상생 소평플랫폼이다. 진안군은 이번 계약 체결을 기념해

△앤드마켓 내 단독 프로모션 기획 전 △의부 제휴 채널(Ebay, G마켓, 11번가 등)을 통한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기획 및 운영 중이다. 지난 25일 시작한 이번 프로모션은 29까지 운영되며 '올컬', '슈퍼딜' 참여로 아이템별 쿠폰 발행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상으로는 △진안 농협조합공동법인의 완속도마토 △순수람 체담카레 △국내산 100% 전통청국장 등 23개 업체 80여 상품이 포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시민 무주 정착 위해 자립 지원·인프라 구축 '최선'

무주군이 올 한해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에 총력을 쏟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연간 8억여 원을 투입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유치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지원 △귀농·귀촌 집들이비용 지원 △귀농·귀촌 건축설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 △청장년 귀농·귀촌 창업활동지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했다.

특히 군이 올 한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한 결과 10세대 10명의 수료생 가운데 8세대 8명이 무주군에 전



입해 정착률 80%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작년 3세대 7명이 입소한 무풍·안성 귀농인의집도 올해 3세대 5명이 정착해 정착률 71% 실적을 보였으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19년 2명, 20년 35명, 21년 37명, 올해 14세대 5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시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마련했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역할과 정책 등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자구책 마련을 한다는 취지다.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문화예술인 생활마을 살아보기 사업'도 귀농·귀촌 사업 성공의 좋은 예로 평가된다.

황인홍 군수는 "자연과 농업자원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무주는 귀농·귀촌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인구유입에 함께 노력하자"며 "도시민들의 무주정착을 위해 자립지원과 살기 좋은 무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마을만들기 공동체한마당 열려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한 2022년 장수군 마을만들기 공동체한마당 행사가 지난 28일 한누리리정당 산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18개 마을간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마을간 성과를 전시 △마을 홍보영상 상영 △평균연령 8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수척마을·이

통마을 공연단의 사전공연 △마을운동회 △장기지방 등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간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건강한 변화 꽃피는 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서로돌봄과 화해, 우정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마을주민, 행정, 의회, 중간지원조직, 농어촌공사가 함께 하는 개막식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만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2023년부터 1월부터 무주 지역 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서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무주군보건소에 따르면 대상포진 발생률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해 건강수명 연장 및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만65세 이상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만 50~64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대상포진 백신(인독수두 생바이러스 백신)을 1회 접종하게 되며, 무주군보건소 원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인·홍삼산업 업무협약체 구성

진안군·전북인삼농협·진안군홍삼연구소·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진안군 인·홍삼 업무협약체가 구성됐다.

진안군은 2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신인성 전북인삼농협조합장, 김태영 진안홍삼연구소장, 김경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 등 인·홍삼산업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 구성에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전북인삼농협·진안군홍삼연구소·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등 4개 기관이 함께 진안군 인·홍삼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및 강점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인·홍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홍삼한방 특성과 사업을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